

<최병해의 2025년 국어 기출문제 예상 채점 기준 및 예상 답안>

예비교시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파악한 예상 채점기준과 예상 답안입니다. 저는 교사 임용 국어 강의를 하면서 20여 년간 변함 없이 국어 기출 문제 시험 예상 답안을 늘 가장 먼저 공개해 왔습니다. 올해는 교정보던 책을 마무리 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답안 보기 전 아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료에는 2025 기출 문제와 예상 채점 기준 및 예상 답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 채점 기준이나 예상 답안은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답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 복수 답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답안을 찾아, 애써 공부한 내용이 헛되지 않게, 교육과정평가원에 건의해 보라는 의도입니다.(그렇게 생각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둘째 이 시험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데, 답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국어교사 임용 시험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무감에서 매년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올렸습니다.

올해 국어 문제도 모호한 면이 없이 대체로 명확하며, 문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예년보다 어려운데, 국어교육 문제는 쉽게 출제되었고, 문법은 예년보다 조금 어렵게, 문학은 예년보다 많이 어렵게 출제되어 답을 쓰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합격 가능 점수도 대폭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어교육의 경우, A7번 위 문제 '선별한 정보'가 조금 어려웠고, 다른 부분은 쉽고 명료했습니다.

문법의 경우 A9번, B7번 등이 깊이 생각해 답을 길게 써야 하는 문제여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5의 둘째 문제 '확인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경우 오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경우, 2014년에 이어 낯선 작품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문제도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어렵더라도 감상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데, 복기한 답을 보니 여러분의 문학 공부가 감상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암기 위주로 공부했구나 하는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상능력에서 작품의 구성요소와 그것이 지닌 의미(효과)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감상의 기본인데, 대부분의 답이 그러한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쓴 것입니다. A10번 앞의 문제 B8번 뒤의 문제, B11번 앞의 문제 등은 이러한 감상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10번 「성탄제」에서 '구원'을 선택하여 설명하면, 시적 배경인 '성탄제'의 역할에서 '성탄제'가 단순히 '구원'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려 온 예수 탄신일이어서 구원의 주제를 잘 드러낸다는 식으로 그 의미(효과)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구성 요소와 그것이 지닌 의미(효과) 그리고 주제를 관련지어 감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작자(시인)과 시대를 관련지어 감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 10번 오장환의 「성탄제」에서 [A]가 환기하는 파시즘적 억압은 시인과 시대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을 떠올리도록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답에서 이 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 2025년 문제와 같은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단순 암기하는 문학 공부에서 벗어나 감상능력을 함께 길러가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학 답안은 다음의 몇 문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형 10번 첫째 문제에서 구원과 성탄제의 역할(관련지어 구체적으로), A형 10번 둘째 문제에서 일제강점기 강압적 현실, A11번 앞의 문제 서사적 기능이 각성하고 변화하는 계기라는 것과 인물의 성격 변화를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것, A12번 앞의 문제에서 '공경- 예의에 엎매이지 않음' '비판 권계 - 칭찬 찬양' 등의 대비, B8번 둘째 문제 보는 것에서 위를 보고 내려다보는 것, 내면의 성찰을 통한 대응, B형 11번 둘째 문제 화려한 외부 세계와 대조적으로 시름 많은 화자의 대비 등은 저 나름의 감상 능력을 바탕으로 한 답안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고민해서 먼저 답안을 먼저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면, 나중에 이 빠른에 살을 덧붙여 그냥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릴 때마다 속이 상해, 제 강의 자료로만 활용할까 하다가도, 복수 답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해 봐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제시한 '예상 채점 기준'이나 '예상 답안'은 저 개인이 파악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그 점을 감안하여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년 11월 27일

최병해 올림(해커스 임용고시학원)

<최병해의 2025년 국어 기출문제 예상 채점 기준 및 예상 답안>

예비교시 여러분 시험 치르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아래 내용은 제가 파악한 예상 채점기준과 예상 답안입니다. 저는 교사 임용 국어 강의를 하면서 20여 년간 변함 없이 국어 기출 문제 시험 예상 답안을 늘 가장 먼저 공개해 왔습니다. 올해는 교정보던 책을 마무리 하느라 조금 늦어졌습니다. 답안 보기 전 아래 내용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자료에는 2025 기출 문제와 예상 채점 기준 및 예상 답안 등이 담겨 있습니다. 예상 채점 기준이나 예상 답안은 어디까지나 제가 개인적으로 파악하여 제시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올릴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답을 올리는 이유는 첫째 복수 답안으로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답안을 찾아, 애써 공부한 내용이 헛되지 않게, 교육과정평가원에 건의해 보라는 의도입니다.(그렇게 생각한 부분은 붉은색으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둘째 이 시험은 정답을 공개하지 않는데, 답을 궁금해하는 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현재 국어교사 임용 시험을 강의하는 강사로서,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무감에서 매년 빠른 시간 내에 답을 올렸습니다.

올해 국어 문제도 모호한 면이 없이 대체로 명확하며, 문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난이도는 예년보다 어려운데, 국어교육 문제는 쉽게 출제되었고, 문법은 예년보다 조금 어렵게, 문학은 예년보다 많이 어렵게 출제되어 답을 쓰기 어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합격 가능 점수도 대폭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어교육의 경우, A7번 위 문제 '선별한 정보'가 조금 어려웠고, 다른 부분은 쉽고 명료했습니다.

문법의 경우 A9번, B7번 등이 깊이 생각해 답을 길게 써야 하는 문제여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B5의 둘째 문제 '확인의문문'과 '부정의문문'의 경우 오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의 경우, 2014년에 이어 낯선 작품이 가장 많이 출제되었고, 문제도 전반적으로 어려웠습니다. 문제가 어렵더라도 감상 능력으로 풀어야 하는데, 복기한 답을 보니 여러분의 문학 공부가 감상능력을 바탕으로 한 공부가 아니라, 수박 겉핥기식의 암기 위주로 공부했구나 하는 생각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감상능력에서 작품의 구성요소와 그것이 지닌 의미(효과)를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감상의 기본인데, 대부분의 답이 그러한 관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쓴 것입니다. A10번 앞의 문제 B8번 뒤의 문제, B11번 앞의 문제 등은 이러한 감상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A10번 「성탄제」에서 '구원'을 선택하여 설명하면, 시적 배경인 '성탄제'의 역할에서 '성탄제'가 단순히 '구원'을 드러낸다는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려 온 예수 탄신일이어서 구원의 주제를 잘 드러낸다는 식으로 그 의미(효과)도 다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평소에 구성 요소와 그것이 지닌 의미(효과) 그리고 주제를 관련지어 감상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둘째 작자(시인)과 시대를 관련지어 감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형 10번 오장환의 「성탄제」에서 [A]가 환기하는 파시즘적 억압은 시인과 시대만 보고도 직관적으로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 정책을 떠올리도록 공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답에서 이 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학의 경우, 2025년 문제와 같은 문제에 잘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료를 단순 암기하는 문학 공부에서 벗어나 감상능력을 함께 길러가는 학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시하는 문학 답안은 다음의 몇 문제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A형 10번 첫째 문제에서 구원과 성탄제의 역할(관련지어 구체적으로), A형 10번 둘째 문제에서 일제강점기 강압적 현실, A11번 앞의 문제 서사적 기능이 각성하고 변화하는 계기라는 것과 인물의 성격 변화를 대조적으로 드러내는 것, A12번 앞의 문제에서 '공경- 예의에 엎매이지 않음' '비판 권계 - 칭찬 찬양' 등의 대비, B8번 둘째 문제 보는 것에서 위를 보고 내려다보는 것, 내면의 성찰을 통한 대응, B형 11번 둘째 문제 화려한 외부 세계와 대조적으로 시름 많은 화자의 대비 등은 저 나름의 감상 능력을 바탕으로 한 답안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고민해서 먼저 답안을 먼저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고 나면, 나중에 이 빠른에 살을 덧붙여 그냥 활용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올릴 때마다 속이 상해, 제 강의 자료로만 활용할까 하다가도, 복수 답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빨리 교육과정평가원에 문의해 봐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으리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다시 한번, 여기 제시한 '예상 채점 기준'이나 '예상 답안'은 저 개인이 파악한 것이라는 점을 알려드리며, 그 점을 감안하여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년 11월 27일

최병해 올림(해커스 임용고시학원)

2025학년도 대비 중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 문제 풀이

국 어(최병해)

수험 번호 : ()

성 명 : ()

제1차 시험	2교시 전공 A	12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팔호 안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각각 1 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읽기 능력은 (①) 능력에서 독해 능력으로 발달한다. (①) 능력은 문자를 읽을 수 있는 능력으로, 음운 인식, 단어 재인, 읽기 유창성 등의 하위 기능들을 포함한다. 이 중에서 읽기 유창성은 단어 재인 기능과 독해 능력을 연결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읽기 유창성은 자동성, (②) 성, 표현성으로 구성되는데, 자동성은 글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것, (②) 성은 글을 틀리지 않게 읽을 수 있는 것, 그리고 표현성은 글을 적절한 의미 단위로 유연하게 끊어서 읽을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중등 학습자의 읽기 유창성 부족은 다른 여러 교과의 전반적인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원인에 맞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아래와 같이 ①, ②이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①복수 답안 가능>

①서술어의 자릿수(=문장 구조), ②자동사와 타동사

3. 다음을 읽고, 팔호 안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 시오. [2점]

문법적인 설명이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설명이 개념적 정의를 위반하지 않아야 하고, 또한 그 설명이 다른 설명들과 정합적이어야 한다.

- 밥 먹어.
- 밥 먹어요.
- 일찍 일어나.

(2)에서 '먹어요'의 '요'의 경우, (1)의 '먹어'를 고려할 때 적어도 어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1)의 '먹어'에서 (①)(이)라는 것과 (2)의 '먹어요'에서 '요'가 어미라는 것은 서로 정합적이다.

(3)의 '일어나'는 동사 '일어나-'에 어미 '-아'가 결합한 서술어이다. '일어나- + -아 → 일어나'에서 탈락한 /ㅏ/가 어미의 /ㅓ/인지, 동사 어간 '일어나-'의 /ㅓ/인지를 음운론적으로 증명하기는 어렵다. 다만 형태·통사론적 사실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때는 동사 어간의 /ㅏ/가 탈락했다고 보는 것이 더 설명력이 있다. (3)에서 '일어나'는 문장에서 서술어인데, '일어나'가 서술이라는 사실은 '일어나'가 (②)(이)라는 것을 말해 준다. '일어나'가 (②)(이)라는 사실과 '일어나'에서 탈락한 모음이 어미의 /ㅏ/라고 하는 것은 서로 정합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아래와 같이 ①, ②이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①해독, ②정확

2. 다음을 읽고, 팔호 안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쓰 시오.[2점]

(1)의 '-히-'는 피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고, (2)의 '-히-'는 사동사를 만드는 접미사이다.

(1) ㄱ. 다음 달에 여행 계획이 잡혔다.

ㄴ. 도로가 차들로 막혔다.

(2) ㄱ. 엄마가 아이에게 연필을 잡혔다.

ㄴ. 그는 난로에 물을 덥혔다.

(1ㄱ)과 (1ㄴ)에서 '-히-'에 의해 형성된 피동사들의 경우에는 (①)(이)가 같다. 반면 (2ㄱ)과 (2ㄴ)에서 '-히-'에 의해 형성된 사동사들의 경우에는 (②)(이)가 같지 않다.

(1)의 '잡히-'와 (2)의 '잡히-'는 '잡-'에서 파생된 어간들이다. 이때 동사 '잡-'은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느냐에 따라 다른 종류의 동사로 해석된다. 피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 사동사 '잡히-'에 대응되는 '잡-'은 각각 (②)이다. 이처럼 '잡-'이 (②) 중 어떤 동사인지는 그 자체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대응되는 동사가 피동사인지 사동사인지에 의해 결정된다.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아래와 같이 ①, ②이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①'-어'가 어미 (-어), ②어간과 어미의 결합

4. 다음을 읽고, 팔호 안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 순서대로 쓰되 ①은 1어절로, ②은 2어절로 쓰 시오. [2점]

(가)

군위(君位)를 보비라 훌썩 큰 명(命)을 알의요리라 바랐 우희 금탑(金塔)이 소스니

자호로 제도(制度) 날씨 인정(仁政)을 맛도리라 하늘 우蕙 금척(金尺)이 누리시니 (83장)

도상(道上)에 강시(僵尸)를 보야 침식(寢食)을 그쳐지니 민 천지심(旻天之心)에 괴 아니 끋디시리

민막(民瘼)을 모르시면 하늘히 브리시느니 이 빠들 냇디 마 른쇼서
(116장)

백성(百姓)이 하늘히어늘 시정(時政)이 불휼(不恤)할 써 역배 군의(力排群議) 허사 사전(私田)을 고티시니

정감(征歛)이 무예(無藝)하면 방본(邦本)이 곧 여리느니 이 빠들 냇디 마 른쇼서
(120장)

- 정인지 외, 「용비어천가」-

(나)

전근대 시기 동아시아 국가들은 새로운 왕조의 건립 과정에서 개국의 시조가 초월적 존재로부터 '천명(天命)'을 부여받았다고 함으로써 건국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용비어천가」의 편찬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으나, 그들은 이성계가 왕이 되기 전 미리 신탁(神託)을 받았다는 것을 (①)(이)라는 군왕의 상징적 증거물을 통해 현시함으로써 이성계와 그의 왕조를 신성화하였다.

그러나 「용비어천가」의 편찬자들은 이에 머물지 않고 군왕을 향한 정치적 권계(勸誠) 의식을 명시적으로 표출하기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도 천명의 존재는 이론적 근거로 기능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그들이 종래의 천명론이 아니라 '유교적 천명론'에 기대어 자신들의 요청 사항을 군왕에게 전달하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교적 천명론은 초월자의 계시에 의해 천명이 확보된다 기보다는 '민심(民心)'이라는 경험적 현실을 통해 그 실재여부가 입증된다는 것이다. 이는 역으로 군왕이 민심을 상실할 경우 (⑤)에서 확인할 수 있듯 천명이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아래와 같이 ①, ⑤이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⑦금칙, ⑧하늘히 브리시나니

5. 다음을 읽고, 설득 목적의 발표를 위한 청중 고려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설득 의사소통에 대한 자료

사회적 판단을 요하는 메시지를 접하면 우리는 먼저 자신이 찬성하는 것, 반대하는 것, 중립적인 것으로 사안을 분류하고 각각 허용, 거부, 불개입 범위에 포함시킨다. 사안에 대한 개인적 관련성이 높으면 허용 혹은 거부 범위가 넓고 이에 따라 불개입 범위가 좁다. 메시지가 수신자의 허용 혹은 불개입 범위에 있고 메시지의 입장이 수신자의 원래 입장과 상이한 정도가 클수록 태도 변화 가능성이 높다. 메시지가 거부 범위에 있고 거부 범위가 넓다면 주장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의 가능성성이 낮다.

(나) 화법 교수·학습 모형에 대한 자료

청중을 고려한 설득적 발표의 교수·학습 모형에서는 교수자

가 과제 난도를 고려해야 한다. 청중의 태도 변화 가능성성이 낮을수록 과제 난도는 높아지게 된다.

(다) 사전 수업 협의록

김 교사: 설득 목적의 발표 수업을 하려고 해요. 학생마다 발표 능력이 다르니 개인차를 고려할 수 있게 수행 과제의 난도를 달리하여 과제 조건을 나눠야겠어요.

이 교사: 청중의 입장장을 달리 설정하면 어떨까요?

박 교사: 청중의 개인적 관련성이 높고 낮음을 구분해 보아도 좋겠어요.

김 교사: 두 변인을 모두 고려해 조건1~4를 설정해 볼게요. ① 발표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는 가장 어려운 조건의 과제를 수행하게 해야겠어요.

		챙점에 대한 청중의 개인적 관련성	
		낮음	높음
주장에 대한	반대	조건1	조건2
	중립	조건3	조건4

(라) 김 교사의 수업 성찰 일지

과제 난도를 학생의 능력에 맞춰 제시하니 모든 학생이 흥미를 갖고 과제를 수행했다. 그런데 일부 학생이 메시지를 전략적으로 조작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다음번에는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①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것, ②반론을 소개할 뿐 반박하지는 않는 것, ③반론을 언급하지 않는 것 중 어느 것이 설득에 더 효과적인지 생각해 보게 해야겠다.

<작성 방법>

- (가)와 (나)를 참고하여, '김 교사'가 ①에게 '조건 1~4' 중 무엇을 제시했을지 밝히고, 그렇게 판단한 이유를 서술할 것.
- '김 교사'가 ①에게 제시했을 '조건'에서 ④~⑤ 중 어느 것이 설득에 가장 효과적일지 밝히고, 그 이유를 해당 '조건'의 청중의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서술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조건 2' 와 그 이유가 맞으면 : 각각 1점
- 2점 - 설득에 효과적인 ④와 그 이유를 메시지 처리 동기로 맞게 밝혔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김 교사가 ①에게 조건 2를 제시했을 것이다. (가)에서 청중의 개인적 관련성이 높아서 거부 범위가 넓고, 청중의 주장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태도 변화의 가능성성이 적고, (나)에서 태도 변화의 가능성성이 낮을수록 과제 난도가 높으므로 발표 능력이 높은 학생에게 적절하다.

<주의> : 교양이나 지식 정도가 높은 청중이면 ④, 교양이나 지식 정도가 낮으면 ⑤인데, 청중의 정보가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발표자의 과제에 맞게 ④를 제시했음.

김 교사가 ①에게 제시했을 조건 중 ④가 설득에 가장 효과적이 다. 조건 2의 메시지 처리 동기 측면에서 반론을 소개하고 이를 반박하는 양면 메시지 전략을 활용하면, 청중의 심리적 저항감을 줄이면서 태도 변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6. 다음을 읽고, 고쳐쓰기 교수·학습 방안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김 교사의 수업 활동 개요

◦ 고쳐쓰기 활동의 목적

초고의 내용과 형식을 검토하여 오류를 수정한다.

◦ 고쳐쓰기 활동의 절차와 방법

첫째, 초고를 다 쓴 이후, 오류를 발견하는 것에 집중하며 읽고, 오류를 발견하면 표시를 해 둔다. 이때 글 전체 및 문단 수준에서 글의 주제 및 내용, 구성을 검토하고, 문장 및 어휘 수준에서 표현이 적절하며 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둘째, 읽는 과정에서 표시한 사항을 중심으로 초고에 대해 추가, 삭제, 대치, 재구성 작업을 진행한다.

(나) 수업 연구회

하 교사: 오늘 수업 연구회의 주제는 '고쳐쓰기'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고쳐쓰기를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지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 교사: 저는 학생들이 고쳐쓰기를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수업 활동을 구성해 보았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쓴 초고를 읽으며 글의 오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 교사: 활동 개요를 잘 보았습니다. 고쳐쓰기 활동을 개발하며, 특별히 신경 쓴 점은 무엇인가요?

김 교사: ①평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작문 이론의 관점을 반영하여 어법상의 정확성과 글 내적 구조의 완결성에 주목하고자 했습니다.

박 교사: 김 선생님의 고쳐쓰기 활동 개요가 구체적인 방안을 안내하고 있어서 좋지만 ②인지주의 작문 이론의 관점에 근거해서 고쳐쓰기를 다룰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하 교사: 그리고 고쳐쓰기 과정에서 ③필자의 자기중심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추가하면 더 좋겠네요.

<작성 방법>

- ④와 ⑤에서 각각 고쳐쓰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 차이를 서술할 것.
- ⑥이 무엇인지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1가지 쓸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형식주의와 인지주의 고쳐쓰기가 맞으면 : 각각 1점
- 2점 - ④을 소통으로서의 글쓰기 측면에서 설명하고,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전략을 1가지 제시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주의> : 일반적인 형식주의, 인지주의 쓰기가 아니라, 고쳐쓰기

와 관련된 내용이 적용되어야 정확한 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함..

ⓐ는 형식주의 입장으로 어휘의 적절성, 문법상의 정확성 및 글 내적 구조의 완결성 등 글쓰기 기능 중심으로 고쳐쓰기를 하고, ⓑ는 인지주의 입장으로 글쓰기의 목적, 필자의 의도, 내용과 주제의 관련성, 글쓰기의 맥락, 단계별 전략 및 효과 등의 상위인지를 중심으로 고쳐쓰기를 한다.

7. 다음을 읽고, 읽기 쓰기 통합 수업의 지도 방안에 대하여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목표

- 사회적 현상을 주제로 한 글을 중심 내용을 파악하며 읽고, 읽은 내용을 활용하여 자신의 관점을 담아 주장하는 글을 쓴다.

(나) 수업 활동지

- <활동1> 제시된 자료를 읽고, 중심 내용을 적으시오.

<읽기 자료 1>

윤리적 소비는 건강, 환경, 사회, 인권 등의 '윤리적 가치'를 소비 결정의 기준으로 고려하는 소비 행동을 뜻한다. 이는 품질과 가격이라는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공동체에 유익한지를 기준으로 소비를 결정하는 것이다.

윤리적 소비는 그 성격에 따라 사회적 차원, 생태적 차원, 개인적 차원의 세 유형으로 구분된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소비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회사의 상품을 구매하는 것, 생산자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먹거리리를 소비하는 것 등을 권장한다. 생태적 차원에서는 자연 생태계와의 공존과 상생을 추구하며, 재활용품 및 친환경 제품의 구매 등을 권장한다. 마지막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소비자 개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소비를 추구하며, 안전하게 재배한 유기농 음식을 구매하는 것 등을 권장한다.

**중심 내용: 윤리적 소비는 환경을 가장 우선시하는 소비이다.
 윤리적 소비는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읽기 자료 2>

대량 생산·대량 소비 체계는 탄소를 대량으로 발생시켜 지구 온난화를 심화한다. 반면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소비자는 탄소 발생량이 적은 제품을 소비하는 것으로 환경 보호에 일조할 수 있다. K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식품 기업 S 사에서 출시한 비닐 라벨 제거 생수는 환경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과 분리배출의 편의성으로 소비자들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얻어 3년간 플라스틱을 약 2,570톤 절감했다고 한다. 또한 지역 먹거리를 이용하면,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이동 거리가 줄어 유통 시 발생하는 탄소 발생량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중심 내용: 윤리적 소비는 환경 보호에 기여한다.

- <활동 2> '윤리적 소비'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 계획을 세우고, 읽기 자료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아 정리하시오.

1. '윤리적 소비'에 대해 주장하는 글 쓰기 계획 세우기
- 글의 주제: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자.
 - 쓰기 목적: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할 것을 설득함.
 - 예상 독자: 학급 친구들

2. 글쓰기에 필요한 정보를 읽기 자료에서 선별하기

구분	선별한 정보
1) 윤리적 음식소비가 필요한 까닭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에 유익한 소비(← 읽기 자료 1) 환경 보호에 기여(← 읽기 자료 2)
2)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 먹거리 소비(← 읽기 자료 1, 2) 재활용품 구매(← 읽기 자료 1) 유기농 음식 구매(← 읽기 자료 1)

◦ <활동 3> 앞의 활동을 바탕으로 초고를 작성하시오.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합시다

소비를 통해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윤리적 소비'가 하나의 생활 문화로 자리 잡았다. 이에 음식은 윤리적으로 소비해야 할 필요성과 그 실천 방법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모두는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A] **왜냐하면**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은 공동체에 이롭고, 특히 환경 보호에 기여하기 때문이다.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지역 먹거리를 구매하는 방법이 있으며, 그 외에 재활용품 구매하기, 유기농 음식 소비하기 등과 같은 방법도 있다.

음식을 윤리적으로 소비하는 일은 결국 우리 모두를 이롭게 한다. 내가 먹는 음식에 대한 윤리적 소비 실천은 결국 더욱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먹거리로 돌아올 것이다.

(다) 교사 간담회

김 교사: 읽기 쓰기 통합 과제를 해결할 때 학생들은 독자와 필자의 역할을 복합적으로 수행해야 합니다. 글을 읽을 때에는 ⑦글의 중심 내용 파악을 정확하게 해야 하고 나아가 ⑧글쓰기에 필요한 정보 선택도 목적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두 부분 모두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신 교사: 글의 주제는 잘 설정한 것 같습니다. 다만 어떤 문단이 ⑨논증의 구성 요소인 주장, 이유, 근거 중 하나를 누락하였는데, 이에 대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작성 방법>

- ⑦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1>에서, ⑧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을 <활동 2>의 '선별한 정보'에서 각각 1개씩 찾아서 설명할 것.
- <활동 3>의 [A]에서 ⑨ 중 누락된 것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A]를 올바르게 수정하는 방안을 읽기 자료 2의 내용을 활용하여 서술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⑦과 관련한 문제점, ⑧과 관련한 문제점이 맞으면 : 각각 1점
- 2점 - ⑨에서 누락된 요소와 수정할 내용을 조건에 맞게 제시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활동 1>에서 ⑦(중심 내용 파악과 관련한) 문제점은 첫 단락의 윤리적 소비 개념에서 '공동체에 유익한가를 기준으로 결정하는 소비'라는 핵심 내용을 드러내지 못했다.

<활동 2> <⑨복수 답안 가능> 필요한 정보선택의 문제점 – 관점에 따라 아래와 같은 복수 답안 가능하다고 생각함

① 2-2) 둘째 줄 1 : '재활용품 구매'와 관련지으면 중요 요소인 '친환경 제품' 구매가 빠져 있고, 그 내용의 적절성에도 의문이 있다.

② 2-2) 둘째 줄 2 : '재활용품 구매'와 관련지으면 선별한 정보가 '읽기 자료 1'과 '읽기 자료 2'에 나타난 생태, 환경 등의 내용을 포괄하지 못했다.

③ 2-2) 둘째 줄 3 : '지역 먹거리 소비'와 관련지으면, '읽기 자료 1'의 핵심 내용 중 '노동자의 권리를 강조하는 회사 제품 구매'가 중요한데, 누락되었다.)

활동 3의 [A]에서 ⑨논증의 요소 중 누락된 것은 근거이다. 읽기 자료 2를 바탕으로 [A]를 수정하면, 식품 기업 S사의 비닐 라벨 제거 생수가 3년간 플라스틱을 약 2,570톤 절감했다는 K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제시한다.

8. <자료 1>은 과제에 대한 한 학생의 답안 중 일부이고, <자료 2>는 그에 대한 교사와 학생의 대화 중 일부이다. 단어의 구조 및 형성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자료 1>

<문제 1> 파생어와 합성어의 예를 순서대로 하나씩 써 보자.
(코웃음, 동다리)

:

<문제 3> 의미가 같으나 형태가 다른 접두사, 접미사가 쓰인 단어의 짹을 순서대로 하나씩 써 보자.
(되물다/되흔들다, 바삭대다/바삭거리다)

:

<문제 5> 두 개 이상의 단어 중 일부가 결합하여 새 단어가 된 경우를 두 개만 써 보자.

(아침 + 절심 → 아절, 꾀泯)

:

<자료 2>

교사: 선영아, 과제를 열심히 해 왔구나. 대체로 잘했지만 고칠 것도 눈에 띄는데 한번 불까? <문제 1>에서 제시한 단어는 둘 다 합성어인데 왜 그럴까? 지난 시간에 배운 걸로 충분히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선영: 아, 선생님. 제가 착각했어요. '코웃음'은 파생 접미사가 있

기는 하지만 ⑦합성어네요. ‘비웃음’이면 되나요?
 교사: 그래, 바로 이해했구나. 그럼 <문제 3>을 볼까? ‘-대다’와 ‘-거리다’는 의미가 같으나 형태가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되-’와 ‘뒤-’도 그럴까?
 선영: 아, 그렇네요. ⑦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럼 ‘새빨갛다/시뻘겋다’와 같은 예를 쓰면 되나요?
 교사: 그래, 잘 맞았어. 그런데 <문제 5>의 답은 하나밖에 안 썼네. 예를 하나 더 들면 ‘대학’과 ‘입학’을 결합하여 ‘대입’이라고 하는 것을 쓸 수 있겠지. 그런데 ‘아점’과 ‘대입’은 형성 방식 면에서 ⑧차이점도 있어.

화가 적용된 형태로 단어가 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규칙에 따라서는 어간의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야기한 경우도 있다.

드물지만 언중이 오분석하여 어간의 형태가 바뀌기도 한다. /ㅂ/ 불규칙 용언 ‘좁-’이 이에 해당한다. ‘좁-’은 15세기 국어에 서는 ‘좁-’이었는데, /△/ 소멸 후 ‘주스니 > 주으니’로 변화되었고, 이 ‘주으니’가 다시 ‘주우니’로 변동되었다. 이 ‘주우니’를 /ㅂ/ 불규칙 활용형으로 오분석하여 ‘좁-’으로 어간의 형태가 바뀌었다.

<작성 방법>

- ⑦과 같이 말한 이유를 합성어 또는 파생어의 정의에 근거하여 설명할 것.
- ⑧과 같이 말한 이유를 ‘되-’와 ‘뒤-’ 각각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설명할 것.
- ⑨의 내용을 계열 관계, 결합(통합) 관계의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1점 - ⑦을 합성어의 정의로 맞게 설명했으면 : 1점
- 1점 - ⑧의 의미가 2가지 모두 맞게 드러났으면 : 1점
- 2점 - 계열 관계, 통합 관계 개념을 적용하여 ⑨의 내용을 맞게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합성어는 어근과 어근이 결합한 것이고, 파생어는 어근과 접사가 결합한 것이다. ‘코+웃음’은 어근과 어근(파생어)이 결합한 ‘파생어의 합성’이므로 합성어라고 했다. ⑦에서 ‘되-’는 ‘다시’의 의미를 나타내고 ‘뒤-’는 ‘마구, 뽑시, 온통’ 등의 의미여서 그 의미가 다르다.

⑨에서 ‘아점’은 ‘아침’과 ‘점심’이라는 대등한 두 단어가 ‘점심’과 ‘저녁’ 등으로 대치(교체)가 가능한 계열관계를 이루는 대등합성어이고, ‘대입’은 ‘입시’가 주가 되고 ‘대학’이 그것을 수식하는 규칙으로 짜여져 있어 결합(통합)관계를 이루는 종속합성어이다. (밑줄이 중심)

9. 다음을 읽고, <자료>를 분석하여 구개음화와 관련된 음운사적 사실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현대 국어에서는 ‘경구개 자음-모음’ 연쇄와 ‘경구개 자음-y계 (j계) 이중모음’ 연쇄가 대립되지 않는다. 예컨대 표기상으로는 '(자신감을) 가져'처럼 '쳐'가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발음은 [가져]이다.

① 15세기 국어에는 구개음화가 존재하지 않았다. 근대 국어에 발생한 구개음화에는 /ㄷ/ 구개음화뿐만 아니라 /ㄱ/가 /ㅈ/로 바뀌는 /ㄱ/ 구개음화도 있었다. /ㄷ/ 구개음화는 단어의 형태를 바꾸는 변화를 야기했지만, /ㄱ/ 구개음화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야기하지 않았다. 현대 국어에서 단어 내부에 ‘디, 데...’와 같은 음절을 가진 단어를 찾기 어려운 것은 /ㄷ/ 구개음

<자료>

(1)

	15세기
ㄱ.	저[自] : 저[筋]
ㄴ.	장[皮] : 장[醬]

(2)

	15세기	18세기	현대
ㄱ.	/ㄷ/ 구개음화	디-	-지
ㄴ.	/ㄱ/ 구개음화	기울-	지울-

(3)

15세기	18세기	현대 국어
맞디-	맞지-	맡기-

<보기>

- (1)의 15세기 국어 /ㅈ/의 음운적 특성을 설명할 것.
- ⑦의 이유를 구개음화의 발생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할 것.
- (2)를 토대로 (3)에서 ‘맞디 → 맡기-’의 형태 변화를 설명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1점 - 15세기 국어 /ㅈ/의 음운적 특성이 맞으면 1점
- 1점 - ⑦의 이유를 구개음화의 발생 조건과 관련하여 설명했으면 1점
- 2점 - 15~18세기 형태 변화 및 음운의 변동과, 18~현대 형태 변화에 대한 설명이 각각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주의> 답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설명이 길어짐(밑줄 부분이 핵심)

(1)의 15세기 국어에서 ‘ㅈ’은 치조음(치음)이어서 ‘ㅈ - 모음’ 연쇄와 ‘ㅈ - y계 이중 모음’ 연쇄가 대립되어 나타났다.

① 구개음화는 치조음(설음) /ㄷ, ㅌ/이 전설 모음(경구개) i나 반모음 j와 만나서 경구개음 /ㅈ, ㅊ/으로 바뀌는데, 중세에는 /ㅈ, ㅊ/도 똑같은 치조음(치음)이어서 발음의 편이성이 없으므로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이 구개음으로 바뀌면서 /ㅈ, ㅊ/뒤에 i나 y계(계) 이중 모음이 오면 발음이 쉬워져, /ㄷ, ㅌ/ 뒤에도 i나 y계(계) 이중 모음이 오면 /ㅈ, ㅊ/으로 소리나는 구개음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3)의 맞디-는 15세기에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2)를 보면 18세기에 /느/, /ㄱ/ 등 구개음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맛지–’가 그런 구개음화를 보여준다. 그런데 ‘맛지–’는 현대로 오면서 /ㄱ/ 구개음화가 /ㅈ/으로 회귀하는 시기에 언중들이 ‘맛지–’의 원형을 ‘맛기–’로 오분석하여 /ㅈ/을 /ㄱ/으로 적은 부정회귀가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10.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해석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산 밑까지 나려온 어두운 숲에
물이꾼의 날카로운 소리는 들려오고
쫓기는 사슴이
눈 우에 훌린 따듯한 풋방울.

[A] 골짜기와 비탈을 따라 나리며
넓은 언덕에
밤 이슥히 햇불은 꺼지지 않는다.

못 짐승들의 등 뒤를 쫓아
며칠씩 산속에 잠자는 포수와 사냥개,
나여린 사슴은 보았다
오늘도 물이꾼이 메고 오는
표범과 늄대.

어미의 상처를 입에 대고 핥으며
어린 사슴이 생각하는 것
그는
어두운 골짜에 밤에도 잠들 줄 모르며 솟는 삵과
깊은 골을 넘어 눈 속에 하얀 꽃 피는 약초.

아슬한 참으로 아슬한 곳에서 쇠북 소리 울린다.
죽은 이로 하여금
죽는 이를 묻게 하라.

길이 돌아가는 사슴의
두 뺨에는
맑은 이슬이 나리고
눈 우엔 아직도 따듯한 풋방울.....

- 오장환, 「성탄제」-

<보기>

성탄제는 관습적으로 ⑦생명, 구원 등을 의미한다. ‘성탄제’는 이 시에서 시어로 쓰이지 않았지만 제목을 통해 시적 배경으로서 환기된다. 시의 맥락을 고려하면 성탄제의 관습적 의미는 ⑦‘어린 사슴’의 바람과 연관되며 시의 주된 정서를 드러내는데 관여한다. 한편 이 작품은 여러 종류의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구체화하는데, ⑧시가 창작된 배경을 고려하면 이러한 이미지들이 환기하는 상황은 당대의 파시즘적 억압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 있다.

<작성 방법>

- ⑦ 중 1가지를 사용하여 ⑧의 내용을 설명하고, ⑨에 담긴 시의 주된 정서를 중심으로 ‘성탄제’가 시적 배경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서술할 것.
- [A]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 방식을 쓰고, [A]가 환기하는 상황을 ⑩의 관점에서 서술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1점 - [A]가 환기하는 상황을 ⑩의 관점에서 서술했으면 : 1점
- 1점 - ⑨의 정서에 ‘성탄제’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밝혔으면 : 1점
- 2점 -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 방식 및 [A]가 환기하는 상황을 ⑩의 관점에서 서술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⑦의 ‘구원’을 사용할 때, ⑨어린 사슴의 바람은 포수와 사냥개를 피해 누군가가 어미와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다. ⑨에 담긴 주된 정서는 위기에서 간절하게 구원을 바라는 정서이며, ‘성탄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탄생한 예수를 기리는 날이므로 시적 배경으로서 구원이라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한다.

[A]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시각적 이미지의 표현 방식은 색채 이미지를 사용하여 ‘어두운 숲’과 ‘따뜻한 피’, ‘밤’과 ‘햇불’을 각각 대조적으로 표현하였으며, [A]가 환기하는 상황은 1930년대 말(1939)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지정책에 의해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한 상황으로 볼 수 있다.

11.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앞부분 줄거리] 인민군이 점령한 고향 마을에서 인민재판이 열리고, 현은 사람들이 처형되는 광경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총을 탈취해 동굴로 도망친다.

오랜 회상에 잠겼던 현은 깜았던 눈을 크게 뜨며 어두운하늘에 송송이 박힌 별들을 쳐다보았다. 뚝! 동굴 안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 어느덧 바람은 자고 벌레 소리가 있었다.

[A] 그다음의 일을 더듬을 수 있는 분명한 기억이 없었다. 그 것은 불연속선. 순간적으로 내민 자기의 주먹에 쓰러지던 연호. 앞에 버티고 섰던 보안서원의 소총을 낚아채고 군중의 틈으로 빠져나가던 기억. 수라장이 된 네거리. 집행자들의 고함과 군중들의 비명. 몇 발의 총성. 눈앞에 드리웠던 황갈색 베일. 그 베일을 통해 눈에 뛰어들던 땅을 밟으며 어디를 어떻게 달리었던지. 쫓기던 끝에 ××강 하류에 이르러 물속에 뛰어들던 기억. 그래도 소총은 그 손에 있었다.

‘그때의 충동. 그렇게 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한 마음의 충동은 그 무엇이었을까. 이 검은 눈으로 목격한 살인. 목격은 일종의 목인. ⑦목인하는 군중의 일원으로 그대로 늘이고 있을 수 없었던 마음의 줄. 그리고 아픔. 희생자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내려지는 아픔은 곧 나 자신의 머리와 어깨와 허리에 가해지는 아픔이었다. 어찌하여? 나와 그와 그리고 모든 군중. 거기에는 아무런 육체적인 연결이 없었다. 그런데 나는 아픔을 느꼈

다. 그리고 그 아픔에서 벗어나려고 했다. 그리고 결국 도망을 치고 말았던 것이다.’

현은 지난날의 그 몇 번인가의 저항의 충동을 생각해 보았다. 일인(日人) 교수에 대한 반발—자기혐오와 함께 몸을 오므린 퇴각.

[B] 학교장에 대한 항의—겸연쩍어 사직을 하고 만 패배. 아니 폐복.

일군(日軍)에서의 탈주—또다시 연안(延安)에서의 도주, 도피의 연속.

어느 때 정면으로 싸워 본 일이 있었던가. 단 한 번. 그것은 극히 어리던 시절의 일. 할아버지의 혹을 두고 얼굴에 흘린 피와 갈기갈기 찢긴 옷. 뜻밖에도 할아버지는 노하셨지. 모든 거북한 일에 등을 돌리는 습성이 내 가슴에 깃든 것은 어느 때부터였던가. 그리고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린 삼십 년의 결산은 결국 도망을 놓았다는 것이다.

…(중략) …

껍질 속에 몸을 오므리고 두더지처럼 태양의 빛을 꺼린 삶.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있었다. 마치 돌멩이처럼. 결국 너는 살아본 일이 없었던 것이다. 살아본 일이 없다면 죽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살아본 일이 없이 죽는다는 것, 아니 죽을 수도 없다는 안타까움이 현의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공포의 감정을 휘몰아 왔다. 현은 잊어져 가는 생명의 힘을 돋우어 이 공포의 감정에 반발했다.

‘살아야겠다. 그리고 살았다는 증거를 보이고 다시 죽어야 한다.

현은 기를 쓰는 반발의 감정 속에서 예기치 않은 새로운 힘이 움터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 힘이 조금씩 조금씩 마음에 무게를 가하더니 전신에 어떤 충족감이 느껴지자 현은 가슴속에서 갑자기 우직하고 깨뜨려지는 자기 껍질의 소리를 들었다. 조각을 내고 부서지는 껍질. 그와 함께 거기서 무수한 불꽃이 튀는 듯했다. 그것은 다음 차원에의 비약을 약속하는 불꽃. 무수한 불꽃. 찬란한 그 섬광. ⑤불타는 생애의 의욕. 전신을 흐르는 생명의 여울. 통절히 느껴지는 해방감. 현은 끝없이 푸른 하늘로 트이는 마음의 상쾌를 느꼈다.

‘나머지 한 알의 탄환. 그처럼 내가 살아남는 것이라 하자.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일까. 그것은 누구도 모른다. 먼저 나 자신이 선택할 것이다. 다음은—그것은 더욱 누구도 모른다.’

[C] 분명한 한 가지는 외면하거나 도피하지는 않을 것이다. 외면하지 않고 어떻든 정면으로 대하자. 도피할 수 없도록 결박된 이 처지. 정면으로 대하도록 기어코 상황은 바싹 내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중략) …

이웃을 보는 눈 귀 하나에도 조심을 담고, 건네는 한마디의 얘기에도 남을 괴롭힐사 애쓰는 인간들. 늙은, 젊은, 어떤 남녀의 수많은 얼굴들. 그리운 그 얼굴들이 있지 아니한가. 나는 외로울 수 없다. 이제부터 그들 가운데서 잊어진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청부업자들을 격리하고 주어진 땅 위에 그들과 함께 새로운 마을을 세우자. 거기에 내 덤의 삶을 바치는 것이

다. 청부업자들의 교만과 포악을 곧 같은 인간인 자기 자신의 부끄러움으로 돌리고 한결같이 고통을 참고 견디어 온 ‘조용한’ 인간들. 광기의 청부업자는 사라지고 ‘조용한’ 인간들의 세계가 와야 한다. ⑥조용한 인간들의 세계……

— 선우휘, 「불꽃」—

<작성 방법>

- [A]의 서사적 기능을 사건 전개상 [B]와의 관계 측면에서 서술하고, [B]의 서사적 기능을 인물의 성격 변화 측면에서 [C]를 참고하여 서술할 것.
- ④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을 찾아쓰고 ⑦과 ⑧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서술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1점 – [A]의 서사적 기능을 사건 전개상 [B]와의 관계에서 설명했으면 : 1점
- 1점 – [B]의 서사적 기능을 인물의 성격 변화 측면에서 [C]를 참고하여 서술했으면 : 1점
- 1점 – ④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 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을 맞게 제시했으면 : 1점
- 1점 – ⑦과 ⑧을 활용하여 이 작품의 주제 의식을 서술했으면 : 1점

■ 예상 답안

[A]의 서사적 기능은 사건 전개에서 [B]처럼 주인공이 저항의 의식을 표출하지 못하던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각성하고 변화하는 계기가 된 사건의 제시이다. [B]에서 주인공의 현실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과거의 삶이 드러나고, [C]에서 주인공이 각성하여 현실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드러나는데, [B]는 소극적인 성격에서 적극적인 성격으로 인물의 성격이 극과 극으로 변화했음을 대조하여 강조하는 기능이 있다.

④에 함축된 인물의 내면의식이 명시적으로 부각된 부분은 ‘잃어진 나 자신을 찾아야 한다’이다.

현실에 현실 도피적이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⑦삶의 자세를 벗거나 현실 참여적이고 주체적이고 적극적인 ⑧삶의 추구를 지향한다.

12. 다음을 읽고, 작품의 특징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또 어떤 대장부가 있어 베옷을 입고 가죽띠를 둘렀으며, 흰모자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노쇠하여 비틀거리며 굽어진 허리로 걸어와 말했다.

“저는 서울 성 밖의 큰길 가에 살면서, 아래로는 넓은 들판의 경치를 바라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높다란 산에 기대어 사는 ⑨백두옹이라 합니다.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좌우에서 공급하는 것이 비록 풍족하여 기름진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차와 술로 정신을 맑게 하고 옷장에 옷을 가득 채우고 있더라도, 반드시 좋은 약으로 기운을 북돋우고 아픈 침으로 독을 없애야 합니다. 그러므로 비록 실을 만드는 삼[麻]이 있더라도 떠풀을 벼릴 수 없다고 합니다. 무릇 모든 군자는 어느 세대에나 없지 않으니, 모

르겠습니다만 왕께서도 그러한 뜻이 있으신지요?”

그때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왔는데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하니, 화왕이 말했다.

“장부의 말에도 합당한 것이 있으나 아름다운 사람은 얻기 어려운 것이니 이를 어떻게 함이 좋을까?”

그러자 대장부가 다가가 말했다.

“저는 왕께서 총명하셔서 이치와 옳은 것을 알 것으로 생각하여 여기에 왔는데, 이제 보니 그것이 아닙니다. 무릇 임금된 자 중에는 사특하고 아첨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으면서 정직한 사람을 가까이한 자가 드물었습니다. 이런 까닭에 맹가(孟軻)는 불우하게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낫은 낭중(郎中) 벼슬에 둑여 늙었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하였으니 저인들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 설총, 「풍왕서」—

(나)

갑자기 문밖이 소란해지더니, 문지기가 손님이 왔다고 급히 아뢰었다. 왕은 천천히 말했다.

“오래전에 ①조래선생, 수양처사, 동리은일과 모임 약속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마침 오신 것입니다. 제가 일찍이 빈객으로 높이 대우해 왔으니 앉아서 기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고는 전각에서 내려가 용모를 가다듬고 기다렸다.

한 사람은 푸른 수염에 키가 크고 기개가 높았다. 또 한 사람은 곧고 준엄하며 절조가 말쑥하고 깨끗한 모양이었다. 마지막 한 사람은 누런 관을 쓰고 수수한 옷을 입었는데 덕의 향기가 얼굴에 가득하였다. 세 사람이 이르러서는 길게 인사만 하고 절을 하지는 않으면서 말했다.

“저희는 야인(野人)이라 성품이 속되고 게을러서 예법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왕은 더욱 자신을 낮추어 그들을 예우하였다. 드디어 전각에 올라와서는 자리를 정해 주고 마주 보고 앉았다.

[중략 줄거리] 옥비, 부용성주 주씨 등도 함께 자리하였다. 모두 돌아가며 시 한 편씩을 읊자, 왕은 모두에게 찬사의 말을 건넸다.

이 부인과 반희가 노래하자, 왕이 시동에게 명하여 옥돌 쟁반에 화려한 채색 비단을 담아 하사하며 말했다.

“마땅히 비단을 내릴 만하다.”

두 사람은 왕의 은혜에 절하고 자리에 앉았다. 조래선생이 언짢아하는 얼굴로 수양처사에게 눈짓하며 말했다.

“취하면 물러가야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인사도 없이 담을 넘어 훌쩍 가 버렸다.

이 부인은 농담으로 수양처사와 동리은일에게 말했다.

“옛날에 어떤 처사가 노래에 놀라 담을 넘어 도망했습니다. 좌중의 어떤 이가 회통하며 말하기를 ‘홍분(紅粉)의 즐거움을 산새가 알 리 없지. 단판(檀板) 소리 울리니 놀라서 날아가네.’라고 하였으니 바로 이를 말합니다.”

두 사람은 대답 없이 잇달아 나가 버렸다. 안빙도 가 보겠다고 하였다. 여러 사람이 작별을 아쉬워하며 안빙을 배웅하였다. 왕이 예관에게 명하여 전별 의식을 행하는데, 채단과 수놓은 비단, 금은, 진귀한 노리개 등이 둘에 즐비하였다. 안빙은 절을 하고 문을 나섰다.

한 미인이 문밖에 서 있다가 안빙에게 인사를 하며 말했다. “오늘 놀이는 즐거우셨습니까?”

…(중략)…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천둥소리가 쟁하고 땅이 갈라지는 듯하게 나서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 곧 한바탕 꿈이었다. 술기운이 몸에 배어 있고 꽃향기가 옷에 배어 있었다. 명한 정신으로 일어나 앉으니 부슬비가 해나무에 내리고 천둥의 여운이 은은하였다.

— 신광한, 「안빙몽유록」—

<보기>

우연(寓言)은 의인화된 사물을 통해 ④ 인간 세계에 대한 작가의 태도를 드러낸다. (가)는 신라의 학자 설총이 왕에게 들려주었다는 경계(警戒)의 우언이다. (나)는 조선 중기의 문신 신광한이 지은 우언 형식의 작품으로, 입몽 및 각몽 표지와 더불어 ⑤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작성 방법>

- ⑦과 ⑧이 왕에 대해 보이는 언행의 대비적 양상을 쓰고,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④를 서술할 것.
- ⑤에 해당하는 구절을 찾아 쓰고, ‘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1점 - ⑦과 ⑧이 왕에 대해 보이는 언행의 대비적 양상을 맞게 제시했으면 : 1점
- 1점 - (가)와 (나)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④를 맞게 서술했으면 : 1점
- 2점 - ⑤에 해당하는 구절을 맞게 찾아 쓰고, ‘몽중 사건과 현실 세계의 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⑦의 백두옹은 공경스런 태도를 보이지만, 왕보다 정신적으로 우월한 위치에서 임금에게 비판하고 권계하고, ⑧의 인물들은 스스로를 낮추면서 예의에 염매이지 않는 태도를 보이지만, 칭찬하거나 친양하는 말로 화기애애한 말을 주고 받는다. /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④인간 세계에 대한 작가의 우언적 태도는 꽃을 의인화하여 인재 등용 등 당대의 어두운 정치 현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한다.

<주의>((나)에서는 예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음)

⑤몽중 세계와 현실 세계의 관계를 암시하는 서사적 장치는 ‘술기운과 꽃 향기’이다. 안빙은 꿈속에서 의인화 된 꽃 속에서 술을 마셨는데, 꿈을 깨고 나서 술기운이 몸에 배어 있고, 꽃 향기가 옷에 배어 있다는 내용을 통해 꿈과 현실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어

수험 번호 : ()

성명 : ()

제1차 시험	3교시 전공 B	11문항 40점	시험 시간 90분
--------	----------	----------	-----------

- 문제지 전체 면수가 맞는지 확인하시오.
- 모든 문항에는 배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1.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각각 1 어절로 순서대로 쓰시오. [2점]

작문 평가 상황에서 신뢰도를 확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신뢰도는 측정하려는 것을 얼마나 안정적으로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가의 문제로, 동일한 검사를 반복 시행하더라도 그 결과가 유사하게 도출되는 정도를 가리킨다. 작문 채점 상황에서는 최소 2명의 채점자가 (①)적으로 채점할 것이 권장된다. 채점자 간 신뢰도를 추정하려면 채점자가 상호 (②)적으로 채점했다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작문 채점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채점자 교육을 통해 채점자가 평가의 전 과정에서 평가 척도를 일관성 있게 적용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점자들이 작문 평가 척도를 해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채점자들마다 평가 척도에 대한 해석이 다를 수 있으므로, 평가 척도의 점수에 대응하는 각각의 전형적인 (③)을/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④)은/는 평가 척도가 구현된 양상을 글의 수준에 따라 구체적으로 보여 주는 텍스트를 가리키는데, 이를 활용하면 평가 척도가 채점 상황에서 어떻게 부여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진다.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아래와 같이 ①, ②이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①협력(교차?) ②보법문(표준)

<③복수 답안 가능할 듯> 작문 평가의 신뢰도에서 ③에 '교차 채점'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교차적으로' '교차적 채점' 등 교차에 '-적'이 사용되는 경우가 드물다.

2. 다음을 읽고, 괄호 안의 ①, ②에 들어갈 말을 (가)에서 찾아쓰되, ①은 1어절로, ②은 3어절로 쓰시오.[2점]

(가)

한숨아 세한숨아 네 어늬 틈으로 드러온다
고모장즈 세술장즈 들장즈 열장즈에 암돌격귀 수돌격귀 비목
걸식 쑥닥 막고 크나큰 즘을쇠로 숙이숙이 츄엿는듸 병풍(屏風)
라 덜컥 접고 족자(簇子) | 라 턱터골 말고 네 어늬 틈으로 드
러온다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즘 못 드려 흐노라 - 작자 미상-

(나)

초장에서 화자는 추상적 존재인 '한숨'을 의인화된 침입자로 설정함으로써 물리적인 행위가 불가능한 존재를 가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그런데 '틈'의 의미에 주목할 때 '한숨'의 성격은 대단히 집요하다.

이어지는 중장에서는 '한숨'의 침입을 막아 내기 위한 작중화자의 고안이 '고모장즈'에서 '크나큰 즘을쇠'에 이르기까지 여러 사물들의 숨 가쁜 열거를 통해 제시된다. 또한 중장의 (①) 은/는 어떤 식으로든 '한숨'을 막아 내겠다는 화자의 장인한 의지가 엿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되는데, 이는 화자의 물리적 행위가 신중하고 또 치밀함을 말해 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숨은 이 삼엄한 방비를 뚫고 들어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는바, (②)에서 알 수 있듯 화자는 자신이 느낀 그것의 강렬함을 과장의 수법을 통해 효과적으로 표현한다.

이처럼 의인화된 '한숨'은 종장에 이르러 좀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 각인된다. 이제 화자는 이 달갑지 않은 침입자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 작품은 추상적 대상을 물리적 방법으로 막아 보겠다는 희극적 발상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그 웃음의 이면에는 고난이 우리네 삶의 과정에서 언제든 마주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존재라는 씁쓸한 삶의 진실을 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아래와 같이 ①, ②이 맞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①쑥닥, 숙이숙이(둘 다 가능하다고 생각함)

<③복수 답안 가능할 들판>

②어늬 틈으로 드러온다(?)

<주의> ④ - 앞의 예문에서 존재를 드러낸다는 점에서 이게 답인 듯한데, 뒤의 예문에 있는 '과장의 수법'인지는 의문이 있음)

3. 다음을 읽고, 준언어·비언어 의사소통에 대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교사: 오늘은 준언어·비언어 의사소통을 공부해 봅시다. 다음의 가상 일기문을 읽어봅시다.

지난주에 친구와 다툼이 있었다. 함께 참가한 미술 대회에서 입상한 그 친구를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내가 그 친구에게 음료를 엎지른 것이 다툼의 계기였다. 그리고 오늘, 그 친구와 대회를 나눴다. 그 친구 말로는 그날 내가 말로는 축하한다고 하는데 내내 표정이 밝지 않아 뭔가 못마땅해한다고 느꼈다고 한다. 자신이 이야기할 때 내가 자꾸 눈살을 찌푸려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고도 한다. 그러던 차에 음료를 엎지르자 일부러 그랬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친구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화해의 약수를 한 뒤 돌아와 생각해 보았다. 의도치 않았지만 나도 모르게 내 기분이 표정에 나타났던 것은 아닐까?

교사: 친구는 ‘나’가 말로는 축하하는데 표정에서는 못마땅해하는 마음을 느꼈군요. 친구는 ‘나’의 말과 표정 중 무엇이 더 진심을 담고 있다고 여겼을까요?

학생: 표정요. ‘나’의 표정을 보고 ‘나’가 실은 못마땅해한다고 여겼고, 그래서 음료도 일부러 엎질렀다고 오해한 것 같아요.

교사: 잘 설명했네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누군가의 말과 표정이 불일치할 때 어느 쪽을 더 신뢰하나요?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의사소통 중 타인의 언어적 메시지와 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가 상충할 때 대체로 (㉠) 왜냐하면 (㉡).

학생: 네, 그렇군요. 그래서인지 의사소통에서 준언어와 비언어가 감정을 표현하는 역할을 자주 하는 것 같아요.

교사: 네, 맞습니다. 그 밖에도 준언어·비언어가 의사소통에서 담당하는 역할이 몇 가지 더 있어요. 그중 하나는 대화에서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눈을 마주쳐 대화 시작의 의도를 알리거나, ⑬준언어를 활용해 순서 교대의 적정 지점을 알리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일기문에서 ‘나’가 눈살을 찌푸려 친구가 말을 잊지 못한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학생: 또 다른 역할은요?

교사: 누군가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는 것, 군대에서 거수 경례를 하는 것, 예배드릴 때 두 손을 모으고 고개를 조아려 기도하는 것, 일기문에서 ‘나’와 친구가 화해의 뜻으로 약수한 것 등이 ⑭또 다른 역할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작성 방법>

- ⑦과 ⑮에 들어갈 말을 각각 서술할 것.
- ⑯의 구체적인 예를 1가지 제시하고, ⑯이 무엇인지 서술할 것.

▣ 예상 답안

⑦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를 더 신뢰하는 경향이 있어. ⑮준언어·비언어적 메시지는 직접 관찰을 통해 드러나고, 거기에 화자의 진실한 의도(감정)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야.

<주의> ⑯밑줄 예문(준언어를 활용해 ~) 용어? : 준언어가 아니라 ‘준언어·비언어를 활용해 ~ ’가 되어야 할 듯.>

⑯의 예는 ‘손짓’으로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다.(그밖에 ‘표정’, ‘고갯짓’, ‘억양’ 등이 있다.) (준언어만 적용 – ⑯의 예는 억양을 조절하는(말의 속도를 달리하는) 것이다.

⑯은 준언어·비언어적 표현을 통해 의사소통에서 인사, 예배, 기도 등의 관습적 행위를 수행하는 역할을 제시했다.

4. 다음을 읽고, 읽기 방법의 지도 내용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자료

1. 학습 내용 안내

- ① 추론적 읽기: 글에서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필자의 관점 파악하기
- ② 비판적 읽기: 추론 결과를 바탕으로 표현의 효과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2. 읽기 자료

<자료 1>공중화장실에는 휴지가 늘 부족하다. 무상 제공되므로 사람들이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이용자들이 휴지를 아껴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자료 2>공중화장실에는 휴지가 늘 부족하다. 자원 절약을 핑계로 휴지가 제때 공급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이 휴지를 적시에 공급해야 한다.

(나) 수업기록

교사: 글을 읽을 때는 ⑦필자의 관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점에 따라 문제의 원인은 물론 해결 방안도 달리 제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료 1>은 결론에서 행동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나요?

학생 1: 공중화장실 이용자입니다.

교사: 맞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자료 1>은 문제의 책임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료 2>는 결론에서 행동의 주체를 누구로 설정하고 있지요?

학생 2: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이네요.

교사: 네, 맞아요. <자료 2>는 문제의 책임을 관리기관으로 보는 관점을 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을 바탕으로 두 글은 ⑬문제의 원인 진단도 다르게 하고 있어요. <자료 1>은 두 번째 문장에서 가치판단이 담긴 ‘낭비’라는 어휘를 사용해 문제의 원인이 이용자에게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료 2>의 두 번째 문장에서도 가치판단이 담긴 표현을 찾아볼까요?

학생 2: [A]

교사: 맞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두 글은 마지막 문장에서 ⑭문제 해결 방법까지도 각각 휴지 아껴 쓰기와 적시의 휴

▣ 예상 채점기준

- 2점 – ⑦과 ⑮에 들어갈 내용이 맞으면 : 각각 1점
- 2점 – ⑯의 구체적인 예를 1가지 제시하고, ⑯이 무엇인지 맞게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지 공급으로 달리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자료 3>을 <자료 1>과 비교해 볼까요?

<자료 3>공중화장실에는 휴지가 늘 부족하다. 무상 제공되므로 사람들이 휴지를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는 것이 원인이다. 자판기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유료화해야 한다.

<작성 방법>

- [A]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표현을 찾고, 그 표현의 효과를 ⑦의 측면에서 서술할 것.
- <자료 3> 이 ⑤의 측면에서 <자료 1> 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설명할 것.
- <자료 3> 이 ⑥의 측면에서 <자료 1> 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문제 해결 주체를 고려하여 설명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알맞은 표현 및 그 표현 효과를 필자의 관점에서 맞게 제시했으면 : 각각 1점
- 1점 - <자료 3> 이 ⑤의 측면에서 <자료 1> 과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맞게 제시했으면 : 1점
- 1점 - <자료 3> 이 ⑥의 측면에서 <자료 1> 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문제 해결 주체를 고려하여 설명했으면 : 1점

▣ 예상 답안

[A]에 들어가기에 알맞은 표현은 <자료 2>에서 '평계'라는 가치판단이 남긴 어휘를 사용했고, ⑦필자의 관점에서 문제의 원인이 공중화장실 관리기관에 있다고 책임을 상대에 미룸으로써 필자 자신의 주장을 효과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자료 3>이 ⑤문제의 원인 진단에서 <자료 1>과의 공통점은 문제의 원인이 공중 화장실 이용자의 낭비에 있다는 점이다. <자료 3>이 ⑥문제 해결 방법에서 차이점으로 <자료 1>에서 문제 해결의 주체는 공중 화장실 이용자로 이용자가 아껴야 한다는 것이고, <자료 3>은 문제 해결의 주체가 공중 화장실 관리기관으로 자판기를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5. 다음을 읽고, (1), (1)과 (2)의 중의성에 대해 <작성 방법>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의미론적으로 문장에서 중의성이 발생하는 양상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문장에 쓰인 어휘나 문법 형태소가 다의적이거나 동음어가 있을 때 중의성이 발생한다. 둘째, 문장의 통사 구조가 둘 이상으로 분석될 경우 중의성이 발생한다. 셋째, 부정(否定) 표현, 수량 표현, 보조사 등의 의미가 어느 부분에 작용하는지에 따라 중의성이 발생한다. 이 중에서 통사 구조와 관련된 둘째가 가장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1) 그. 예쁜 언니의 모자

- ㄴ. 영수는 아주 새 차를 좋아한다.
- ㄷ. 진희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

(1)은 ⑦ '[예쁜 언니의 모자]'와 '[예쁜 언니]의 모자]'의 두 가지로 통사 구조가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다. (1)과 (1) 역시 통사 구조가 두 가지로 분석되어 중의성이 발생한 것이다. 한편 (2)에서 발생하는 중의성은 화행적 의미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위에서 설명한 세 가지 중의성의 양상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2) 어제 덥지 않았나?

<작성 방법>

- (1)과 (1)의 중의성이 드러나도록 각각 2가지 통사 구조를 ⑦의 형식으로 제시할 것.
- (2)의 중의성을 문말 억양을 언급하며 설명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1)과 (1)의 중의성이 드러나도록 각각 2가지 통사 구조를 ⑦의 형식으로 각각 제시했으면 : 각각 1점
- 2점 - (2)의 중의성을 문말 억양을 언급하며 확인의문문과 부정의문문으로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1)은 [영수는 아주 [새 차를 좋아한다.]], [영수는 [아주 새] 차를 좋아한다.]의 2가지 통사 구조가 드러나고, (1)은 [[진희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 [[진희는 [울면서 떠나는 선주를] 배웅했다]]의 2가지 통사 구조가 드러난다.

(2)의 중의성은 문말 억양을 낮게 할 경우, 날씨가 더웠다는 의미로 청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확인의문문이고, 문말 억양이 상승할 경우, 날씨가 덥지 않았다는 의미로 묻는 부정의문문으로 쓰인다.

6. 다음을 읽고, 중세 국어 선어말 어미와 그 변천에 대하여 <작성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국어는 교착어에 속한다. 교착어의 가장 큰 특징은 문법 형태소가 밸달해 있다는 것인데, 교착어의 문법 형태소는 일반적으로 형태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한다. 또한 하나의 어간에는 여러개의 어미가 연속적으로 붙을 수 있다.

(1) 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시었겠습니다.

(1)에서 '-으시-'는 주체 높임, '-었-'은 과거 시제, '-겠-'은 추측 양태를 표시하는 형태소이다. 각각 형태와 의미가 일대일로 대응하는데, '-습니다'만 하나의 형태가 상대 높임과 문장 유형이라는 두 가지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2) 그. 내 통답호다라 <석상 6>

- ㄴ. 그릇 쌈을 맛고져 호더이다 <석상 6>
- ㄷ. 내 이제 分明(분명)히 너드려 널오리라 <석상 19>

중세 국어에는 하나의 문법 형태가 여러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좀 더 혼하였다. 예컨대 중세 국어 (2)의 '-다-'를 화

합형이라고 하는데, 왜냐하면 (㉠) 한편 실질 형태소는 문법 형태소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 형태와 의미가 변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예컨대 중세 국어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의 역사적 변화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 (3) ㄱ. 嫁女(채녀) | ...太子(태자)를 빼려 안스방<월석 2>
 ㄴ. 벼슬 노픈臣下(신하) | 남그를 돕스방<석상 9>
 ㄷ. 부벗기 이런 마를 몯 듣즈봉며 <석상 13>

- (4) ㄱ. 신께서 제게 재능을 주시오니 저는 고마울뿐입니다.
 ㄴ. 저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오니 너무 걱정 마세요.
 ㄷ. 소문을 들자오니 길동이가 취직했다고 하더라고요.

15세기 국어 (3)에 쓰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역사적으로 형태가 변하였고, 그와 함께 의미도 변하였다. 현대 국어 (4)의 ㉡‘-오-’, ‘-사오-’, ‘-자오-’는 각각 15세기 국어 (3)의 ㉢‘-술-’, ‘-슬-’, ‘-줄-’이 음운 변화를 겪은 결과물과 관련된 형태로서 그것들과는 다른 문법적 의미를 나타낸다.

<작성 방법>

- ⑦에 들어갈 말을 (2ㄴ)과 (2ㄷ)의 문법 형태소가 실현된 양상을 언급하며 쓸 것.
- (3)과 (4)를 참고하여 ㉡과 대비되는 ㉢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고, ㉢의 문법적 의미를 설명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아래와 같이 (2ㄴ)과 (2ㄷ)의 문법 형태소가 실현된 양상을 밝혀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2점 - ㉡과 대비되는 ㉢의 문법적 특징을 설명하고, ㉢의 문법적 의미를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⑦에는 (2ㄴ)‘흐더이다’에 사용된 회상의 선어말 어미 -더-와 (2ㄷ)‘널오리라’에 사용된 1인칭 화자 표시 선어말 어미 -오-가 결합하여 ‘-다’가 만들어졌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지니기 때문이다.

(3)(ㄱ)의 -술-은 태자를 높이고, (3ㄴ)의 -술-은 남금을 높이며, (3ㄷ)의 -줄-은 부녀를 높여 문장에서 각각 객체(대상)를 높이는 객체높임법으로 쓰였다. 현대국어에서는 그 형태가 (4)(ㄱ)의 -오-, (ㄴ)의 -사오-, (ㄷ)의 ‘자오-’ 등으로 변하였고, 의미도 화자인 나를 낮추는 공손(겸양)의 의미로 사용되어 결과적으로 상대를 높이는 상대높임법으로 사용된다.

7. 다음을 읽고, 국어의 음운 /ㄹ/, /w/가 보이는 양상을 <작성방법>에 따라 설명하시오. [4점]

자음, 모음 그리고 /ㄹ/, /w/를 [자음성], [모음성] 자질로 나타내면 (1)과 같다.

(1)

	자음	모음	/ㄹ/	/w/
[자음성]	+	-	+	-
[모음성]	-	+	+	-

/ㄹ/가 [+자음성, +모음성] 자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2)에서 보이는 양상 때문이다. (2)에서 보듯이 /ㄹ/는 때로는 ㉠[+자음성]의 양상을, 때로는 ㉡[+모음성]의 양상을 보인다.

(2)

ㄱ	물-이 (맑다)	밥-이(맛있다)	배-가(고프다)
ㄴ	알-면	보-면	먹-으면

/w/는 [-모음성, -자음성] 자질을 가진 음운이다. [-모음성]이어서 모음도 아니지만, [-자음성]이어서 자음도 아니다. /w/가 보이는 이러한 속성 중에서 (3ㄱ)과 비교할 때 (3ㄴ)은 ㉢[-자음성]의 양상을, (4ㄱ)과 비교할 때 (4ㄴ)은 ㉣[-모음성]의 양상을 보이는 예이다.

(3)

ㄱ	감기[가*]
ㄴ	삼월[사월]

(4)

ㄱ	와[와] 아[아]
ㄴ	와[와] [*w]

■ '*'는 불가능한 음절을 나타냄.

<작성 방법>

- (2)를 분석하여 ㉠, ㉡을 각각 설명할 것.
- (3)과 (4)를 분석하여 ㉢, ㉣을 각각 설명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2)를 분석하여 ㉠, ㉡을 각각 맞게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2점 - (3)과 (4)를 분석하여 ㉢, ㉣을 각각 맞게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주의> 딥을 제대로 드러내기 위해서는 설명이 길어짐(밑줄 부분이 핵심)

국어 주격조사는 자음으로 끝나면 ‘이’, 모음으로 끝나면 ‘가’가 사용되는데, (2ㄱ)의 ‘물-이’에서 /ㄹ/, ‘밥-이’에서 /ㅂ/은 [+자음성]으로 주격조사 ‘이’가 사용되고, ‘배-가’의 경우 [+모음성]이어서 ‘가’가 사용된다. 연결 어미 ‘-면’은 자음 뒤에서 ‘-으면’으로, 모음 뒤에서 ‘-면’으로 사용되는데, (2ㄴ)의 ‘알-면’은 ‘보-면’처럼 [+모음성]이어서 ‘-면’이 사용되었고, ‘먹-으면’에서 /ㄱ/처럼 [+자음성]이면 매개모음 ‘-으-’가 첨가되어 활용된다.

(3)(ㄱ)에서 감기[가*]에서 /ㅁ/이 /ㄱ/ 앞에 발음될 수 없어서 /ㄱ/은 [+자음성]인데, 삼월[사월]에서 /ㅁ/이 /w/와 함께 발음되므로 /w/는 [-자음성]을 지녔다.

(4)(ㄱ)에서 ‘와[wa]’에서 반모음 /w/가 탈락해도 /ㅏ/는 음절을 이루어 [+모음성]이지만, ‘와[wa]’에서 단모음 /ㅏ/가 탈락하면 /w/는 홀로 음절을 이루지 못하므로 [-모음성]이 된다.

8. 다음은 ‘작품 구성 요소의 유기적 관계와 맥락에 유의하여 작품을 수용한다.’라는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업 설계의 일부이다. ‘교수·학습 계획’과 관련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수업 제재

마음이 또 수수밭을 지난다. 머윗잎 몇 장 더 얹어 뒤란으로 간다. 저녁만큼 져문 것이 여기 또 있다.

개밥바라기별이

내 눈보다 먼저 땅을 들여다본다
세상을 내려놓고는 길 한쪽도 볼 수 없다
논둑길 너머 길 끝에는 보리밭이 있고
보릿고개를 넘은 세월이 있다
바람은 자꾸 등짝을 때리고, 절골의
그림자는 암처럼 깊다. 나는
몇 번 머리를 흔들고 산속의 산,
산 위의 산을 본다. 산은 올려다보아야
한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 저기 저
하늘의 자리는 싱싱하게 푸르다.
푸른 것들이 어깨를 툭 친다. 올라가라고
그래야 한다고. 나를 부추기는 솔바람 속에서
내 막막함도 올라간다. 번쩍 제정신이 듈다
정신이 들 때마다 우짖는 내 속의 목탁새들
나를 깨운다. 이 세상에 없는 길을
만들 수가 없다. 산 옆구리를 끼고
절벽을 오르니, 천불산(千佛山)이
몸속에 들어와 앓는다.

내 맘속 수수밭이 환해진다.

— 천양희, 「마음의 수수밭」—

(나) 수업 참고 자료

매운 계절의 챗죽에 갈거
마침내 북방으로 휩쓸려 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릿발 칼날 진 그 우에 서다

어데다 무릎을 끊어야 하나?
한 발 제거디딜 곳조차 없다

이리매 눈 감아 생각해 볼밖에
겨울은 장철로 된 무지캔가 보다.
— 이육사, 「절정」—

(다) 교사의 수업연구 일지

이번 문학 수업은 「마음의 수수밭」을 제재로 선정하였다.
1차시 수업에서 학생들은 제목의 의미에 비추어 주요 구절의 의미를 생각해 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시가 화자의 마음을 수수밭이 있는 장소에 비유했다는 것을 확인하게 할 것이다.

2차시 수업에서는 화자의 마음 상태에 미치는 영향에 주

목 하여 시적 대상들의 특성을 구별해 보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이 시에 나타나는 시상의 상승 구조가 화자의 마음 상태 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도록 해야겠다. 3차시 수업에서는 작품의 해석 맥락을 확장해 볼 것이다. 유사한 시상 전개 방식이 나타나면서 화자의 행위와 위기 상태에 대한 관점의 전환이 연계되어 있는 다른 작품과 비교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육사의 「절정」은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이다.

(라) 교수·학습 계획

구성요소의 유기적 관계에 유의하여 작품 해석하기	
2차시	◎대상 「마음의 수수밭」 작품 해석 활동
	• 시상의 상승구조에 맞추어 ‘바람’과 ‘푸른 것들’의 특성을 구별하여 말해보자. -----① • ‘푸른 것들’과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시적 대상들을 찾고 그것의 합축적 의미를 말해보자.
상호텍스트적 맥락을 활용하여 작품 해석 확장하기	
3차시	◎대상 : 「마음의 수수밭」, 「절정」 해석 확장 활동
	• 관점 전환 계기의 차이점을 ‘보는 것과 연관된 행위’를 중심으로 설명해보자. -----② • 관점 전환 내용의 공통점을 위기 상태에 대한 화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해 보자. -----③

<작성 방법>

- ①의 활동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모범적인 해석을 서술할 것.
- ②과 ③의 활동에서 교사가 학생에게 기대하는 모범적인 해석을 각각 서술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시상의 상승구조에 맞추어 ‘바람’과 ‘푸른 것들’의 특성을 구별하여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1점 - 관점 전환 계기의 차이점을 ‘보는 것과 연관지어 설명했으면 : 1점
- 1점 - 관점 전환 내용의 공통점을 위기 상태에 대한 화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면 : 1점

■ 예상 답안

<주의> 문제가 ‘활동’과 ‘작성 방법’으로 중복되면서 – 문제를 다시 적어서 답을 써야 하는 경우가 많음 – 적으려니까 시간 아깝고 안 적으려니까 – 불안하고 아래의 () 부분들>

①은 (모범적인 해석으로,) ‘바람’은 나에게 닥친 시련 고난 등으로 ‘골짜기(절골)’의 깊이로 이어지는 부정적인 하강의 이미지이고, ‘푸른 것들’은 ‘생명력, 싱싱함’ 등의 의미로 나를 부추겨 올라가라는 긍정적인 상승의 이미지이다.(이러한 대조를 통해 시련과 그것의 극복이라는 주제를 잘 드러낸다).

②(‘보는 것’)을 중심으로 관점 전환 계기의 차이점을 설명하면,(가)에서는 산을 올려다보는 행위를 통해서 시련이나 고난의 현실에서 상승으로 관점이 전환되고, (나)는 고원에서 눈 감고 내려다보는 행위를 통해 일제하의 암울한 상황에서 해방의 의지로 관점이 전환된다.

㊂(활동에서 위기 상태에 대한 화자의 대응을 중심으로 관점 전환 내용의 공통점은), (가), (나) 모두 힘든 상황에서 시적 화자의 내면을 성찰하여 내면적 의지를 통해 눈앞에 닥친 시련을 극복하려는 자세를 드러내었다.

9.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보기>를 참고하여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앞부분 줄거리] '나'는 예전에 살았던 산동네를 방문하던 중 한 집에서 아홉 가구가 살았던 어린 시절을 떠올린다. 눈이 내린 어느 날 새벽녘에 변소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에 남의 집 단지를 깬다.

사태는 명백하고도 돌이킬 수 없었다.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른 것이었다. 나는 삭풍이 부는 횡령한 벌판으로 변한 마당 가에 서서 힘이 쭉욱 빠져나간 두 어깨를 거느리며 고개를 젓혀 하늘을 바라보았다. 오오, 하느님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나 무거운 눈을 밤새 다 털어 버린 새벽하늘은 너무 높이 올라가 있어 내 혼잣소리가 도저히 닿을 수 없었다. 고개를 숙였다. 나는 시치미를 떼고 누워 있는 그 시커먼 빠루가 마치 마녀의 주문을 받아 밤새 뿐만 눈송이를 덮고 위장한 채 기다리다가 내 발길을 일부러 잡아채거나 않았는가 하는 엉뚱한 의심이 들 정도였다.

나는 어린애답지 않게 몹시 괴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 그것은 내가 그 순간 혈떡이고 있었던 이유를 적절하게 해명해 줄 수 있었다. 괴로하다는 것, 이루 말할 수 없는 괴로감…… 하긴 어찌 괴로하지도 않고 감쪽같이 기절할 수 있겠는가. 바로 그때 내가 괴로해야 하는 목적은 두말할 나위 없이 기절하는 것이었다. 기절이라도 하고 나면 이 세상에 뭔가가 달라져 있겠지. 혹은 최소한 모면의 여지는 남겠지 하는 맹렬한 위안이 달라붙었다.

…(중략) ...

그러곤 어느덧 해 질 녘…… 이미 비밀이 다 깨발려졌을 아홉 가구 집으로 돌아갔다. 대문간 앞에서 나는 심호흡을 몇 번이고 했다. 엄마한테 연탄집게로 맞으면 안 되는데, 싶은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내가 대문간 앞을 흐르는 시궁창을 가로지르는 돌다리를 건너갔지만 아무도 나를 보고 아는 체하는 사람이 없었다. 내게 일제히 안됐다는 시선을 던지며 몰려들었어야 할 사람들이 평소와 다름없이 냄비를 들고 왔다 갔다 했고, 문짝에 기대 입을 가리고 웃었으며, 수돗가에 몰려나와 쌀을 일며 화기애애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심지어 수돗가에서 시래기를 다듬던 마주친 엄마도 너 점심 짖고 어디 갔다 왔니, 하는 지청구조차 내리지 않았다. 나는 무척 혼돈스러웠다. 사람들이 나를 더 곤혹스럽게 만들기 위해 일부러 짜고 그러는 것도 같았다. 나는 얼른 눈사람을 천연덕스럽게 세워 두었던 변소 통 쪽을 돌아다보았다. 거기엔 아무것도 없었다. 눈사람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물론 흥측한 물골을 드러내고 있어야 할 찬지 단지도 눈에 띠지 않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나는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짐작하고 또 생각하는 세계하고 실제 세계 사이에는 이렇듯 머나먼 거리가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그러므로 나는 결코 주변으로 둘

려싸인 중심이 아니라는 아슬푸레한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 더 이상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는 세계가 너무나 괴물스럽고 슬퍼서 싱거운 눈물이라도 흘려야 직성이 풀릴 듯했다. 하긴 눈물 서너 방울쯤 짜내는 것은 일도 아니었으니까. 난 시래기 줄기가 매달린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 차라리 그 깨진 단지라도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혼은 나더라도 나는 혼돈스럽지도 불안해하지도 않았을 것 아닌가.

“뭘 잘했다고 소리 없이 눈물을 꼭꼭 짜니? 정초부터 에밀 못 잡아먹어서 그러니? 넉살 좋게 단지를 깨뜨려 눈사람 속에 파묻을 생각은 어찌했담.”

엄마가 물에 젖은 손으로 내 볼따구니를 야무지게 잡아 비틀며 어이가 없다는 듯 꾹 웃음을 지었다. 그 열얼함이 내 균형 감각을 바로잡아 주었다.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 사이에서 나는 울음을 딱 그쳤다. 그러고는 어른처럼 땅을 쟁광거리며 뛰쳐나와 이 골목 저 골목을 헤집으며 어딘가를 향해 가슴이 터져라고 마구 달리고 또 달렸다. 그렇게 컸다.

“그래 딴 데는 안 들르고?”

“오다가 저기 전에 살던 기찻집이라고 있어요. 옛날 침례교회 밑에 말예요.”

“으응, 있었지.”

“거기 뭐 볼 게 있어서 들어가려다 개 조심이라고 씩어 있어서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나왔어요. 보니깐 너무 바뀌었어요. 지붕도 기와에서 슬래브로 바뀌고 마당 쪽까지 집을 새로 지어서 반지하까지 치면 이 층이나 다름없네요.”

형이 고개를 건성으로 주억거렸다.

— 김소진, 「눈사람 속의 겨울 항아리」—

<보기>

기억에 오래 남아 있어 어떤 식으로든 얹매임을 받게 되는 어린 시절의 체험을 원체험이라고 한다. 도시 빈민의 아들로 자란 김소진의 소설에는 그의 원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은 담론 차원에서 ⑦서술 자아와 경험 자아 사이의 거리를 드러내거나 ⑧서술 자아가 경험 자아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종합하기도 한다. 그리고 이야기 차원에서는 어른이 된 경험 자아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⑨죄책감과 ⑩당혹감의 기억을 소환하고 있다. 이는 심리적 상처를 동반하는 원체험을 주로 다루는 그의 작품 경향과 무관하지 않다.

<작성 방법>

- ⑦과 ⑧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을 각각 찾아 1개씩 쓸 것.
- '나'의 정서가 ⑨에서 ⑩로 전환되는 이유를 인물의 인식 변화 측면에서 제시하고, ⑩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이 무엇인지 찾아 쓸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⑦과 ⑧을 확인할 수 있는 문장을 각각 찾아 1개씩 제시했으면 : 각각 1점
- 1점 - '나'의 정서가 ⑨에서 ⑩로 전환되는 이유를 인물의 인식 변화 측면에서 제시했으면 : 1점
- 1점 - ⑩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을 맞게 제시했으면 : 1점

■ 예상 답안

⑦서술 자아와 경험 자아의 거리를 드러내는 문장은 '나는 어린 애답지 않게 몹시 괴로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듯하다.'이고, ⑨서술 자아가 경험 자아의 과거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종합하는 문장은 '그 거리감은 사실 이 세계는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깨달음, ~ 깨달음에 속한 것이었다'이다.

(나의 정서가 ⑧죄책감에서 ⑩당혹감으로 전환되는 이유는) 잘못을 저지르고 혼이 날 것이라고 걱정했지만, 사람들이 나를 상대하지도 혼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이 세계가 나와 상관없이 돌아간다는 인식 변화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⑨을 표상하는 신체적 반응은 '처마 밑에 서서 몇 방울 떨구며 소리 없이 울었다.'에서 눈물을 흘리는(짜내는) 행위이다. / (이 골목 저 골목 헤집으며 마구 달리는 행위도 가능할 듯).

10. 다음을 읽고, 작품에 대해 이해한 내용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4점]

(가)

어름 우희 맷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 주글만녕
어름 우희 맷닙자리 보와 님과 나와 어려 주글만녕
정(情) 둔 오느 범 더듸 새오시라 더듸 새오시라 (1연)

경경(耿耿) 고침양(孤枕上)애 어느 즐미 오리오
서창(西窓)을 여려 혼니 도화(桃花) | 발(發)호두다
도화는 시름 업서 쇼춘풍(笑春風)호느다 쇼춘풍호느다 (2연)
- 「만전춘별사」-

(나)

연광(年光)이 숙흘(倏忽)하고 조물(造物)이 다시(多猜)하여
봄부람 가을 물이 배오리의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鬚花顏) 어디 가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였고나
내 얼굴 내가 보니 어느님이 날 필소나
스스로 참괴(慚愧)하니 구구(口口)를원망(怨望)하리
삼삼오오(三三五五) 야유원(冶遊園)의 새사름이 나단 말가
꼿 피고 날 쳐문 제 정처(定處) 업시 나가 이서
백마금편(白馬金鞭)으로 어듸 어듸 머문는고
원근(遠近)을 모라거니 소식(消息)이야 더욱 알나
인연(因緣)을 쫓쳐신들 성각이야 업슬소나
얼골을 못 보거든 그립기나 마로려면
열두 째김도 길사 설흔 날 자리(支離)하다
옥창(玉窓)에 심근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추고 추제 자취눈 셧더 치니
녀름날 길고 길 제 구준비는 무삼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 업다
그을 달 방(房)의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의 울 제
긴 하숨 짓는눈물 속결업시 험만 만타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 헛여 어이 헛리
- 혜난설현, 「규원가」-

(다)

시간은 '자연적 시간'과 '심리적 시간'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적 시간은 천체의 주기성에 기반하여 측정되는 객관적 시간이며, 심리적 시간은 말 그대로 주체가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주관적 시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자는 객관적 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해당 시간을 경험하는 ⑦주체의 처지에 따라 시간의 속도가 제각각일 수밖에 없다. 주체의 처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공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때 공간에 대한 주관적 인식은 주체가 거쳐하는 좁은 범위의 장소뿐만 아니라 그 장소 너머의 ⑧외부 세계에까지 미치는데, 주체의 처지는 특정한 정서를 냉고, 그 정서의 종류에 따라 공간에 대한 인식 역시 다양하게 발현된다. 시간과 공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은 인간의 감정을 주로 다루는 서정시에서 정서의 추상성을 구체화하는 데에 밀접하게 관여한다.

<작성 방법>

- ⑦을 중심으로, (가)의 1연에 나타난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을 설명하고 (가)의 2연에서 추정할 수 있는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을 서술할 것.
- (가)와 (나)에서 ⑧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공통의 표현을 찾아 쓰고, 이를 활용하여 두 작품의 정서 형상화 방식을 화자와 ⑨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가)의 1연에서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과 (가)의 2연에서 화자의 심리적 시간 인식을 맞게 서술했으면 : 각각 1점
- 1점 - ⑨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공통의 표현을 찾아 제시했으면 : 1점
- 1점 - 공통의 표현과 두 작품의 정서 형상화 방식을 화자와 ⑨의 관련 양상을 중심으로 서술했으면 : 1점

■ 예상 답안

⑦주체의 처지에 따라 (가)의 1연에서 화자는 임과 함께 있는 경우, 심리적 시간 인식은 시간이 빨리 흘러간다는 인식을 드러냈고, (가)의 2연에서 화자는 임이 없는 경우, 심리적 시간 인식은 지루하고 느리게 흐른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주의 : 아래의 둘째 문제에서 '표현'이 표현 요소를 말하는 것으로 파악해 답을 다르게 쓸 수도 있을 듯.>

((가)와 (나)에서 외부 세계에 대한 화자의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공통의 표현은 '시름 업다(시름 업서)'이다. ((가)의 외부 세계는 서창 밖 도화 세계이고 주관적 인식이 드러난 표현은 '시름 업서'이다. (나)의 외부 세계는 삼춘 호시절의 경물이고 주관적 인식은 '시름 업다'이다.)

(가), (나)에 나타난 ⑨외부 세계는 시름이 없지만, (가), (나)의 시적 화자는 임과 이별하여 고독한 정서를 드러낸다. 작자는 ⑨밖 고 화려한 외부 세계와의 시름 많은 화자의 상황을 대조적으로 제시하여, 화자의 고독한 정서를 더욱 강조하여 표현했다.

11. 다음을 읽고, 작품의 특징을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4점]

(가)

김생이 말했다.

“사람이 말보다 못하단 말이오?”

영영이 말했다.

“말은 보고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김생이 말했다.

“그대가 어찌 다만 사람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겠소?

안색이 초췌하고 모습이 마른 게 저변과 같지 않으니 어찌 그대가 나를 보지 못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것이겠소?

[A] 그대는 내가 아니니 어찌 내 마음을 알겠소?”

영영이 웃으면서 말했다.

“그러한 그대도 제가 아닌데 어찌 제 마음을 아십니까?”

김생이 자리를 가까이 옮겨 앉으며 사실대로 말했다.

“아, 난향이여! 그대가 어찌 무정한 사람이겠소? 처음 만나 말을 나누지 못한 이래로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워 하면서도 서로 보지 못했던가? 아, 난향이여! 그대인들 어찌 슬프지 않겠소? ⑦내가 낭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제 낭자가 왔으니 나는 다시 살아나게 되었소.”

영영은 미소만 지어 보였다.

[중략 줄거리] 김생과 영영은 사랑을 확인했지만 결국 이별한다. 이후 김생은 장원급제하였고, 풍악을 울리는 광대파와 함께 거리를 지나게 된다.

길가를 보니, 백 보쯤 걸어야 할 만큼 크고 높은 궁이 보였다. 푸른 기와와 붉은 난간이 사면에서 빛났다. 섬돌과 뜰은 온갖 꽃과 초목들로 향기로운 숲을 이루고, 회통하는 나비와 벌들이 그 사이를 어지러이 날아다녔다. 김생이 물으니 회산군(檜山君)택이라고 하였다. 김생은 문득 옛날 일이 생각나 마음속으로 은근히 기뻐하며, 짐짓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땅에 눕고는 일어나지 않았다. 궁인들이 무슨 일인가 하고 몰려나오자 구경꾼들이 저자처럼 모여들었다.

이때 궁 안은 회산군의 죽음으로 삼년상을 치른 후, 궁인들이 막 상복을 벗은 상태였다. 그동안 회산군의 부인은 마음 불일 곳 없이 홀로 적격하게 살아온 데다 광대들의 제주가 보고 싶었다. 그래서 시녀들에게 김생을 부축해서 서쪽 가옥으로 모시고, 죽부인을 베개 삼아 비단 무늬 자리에 눕게 하였다. 김생은 여전히 어지러운 듯이 누워 있었다. 이윽고 광대와 악공들이 뜰 가운데 나열하여 일제히 음악을 연주하면서 온갖 놀이를 다 펼쳐 보였다. 시녀들은 고운 얼굴에 분을 바르고 아름다운 머릿결을 드리우고 있었는데, 주렴을 걷고 보는 자가 수십 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영영이라고 하는 시녀는 그 가운데 없었다. 김생은 속으로 이상하게 생각하였으나 그녀의 생사를 알 수가 없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한 낭자가 나오다가 김생을 보고는 다시 들어가서 눈물을 훔치고, 안팎을 들락거리며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다. 이는 바로 영영이 김생을 보고서 흐르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차마 남이 알아챌까 봐 두려워한 것이었다. 이러한 영영을 바라보고 있는 김생의 마음은 차량하기 그지없었다.

날이 어두워지려고 하였다. 김생은 이곳에 더 이상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지개를 켜면서 일어나 주위를 돌아 보고는 거짓으로 놀라며 말했다.

“이곳이 어디입니까?”

궁중의 늙은 노비인 장획이라는 자가 달려와 아뢰었다.

“회산군 택입니다.”

김생은 더욱 놀라며 말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곳에 왔습니까?”

장획이 사실대로 대답하자, 김생은 곧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가려고 하였다.

이때 회산군 부인이 술로 인한 김생의 갈증을 염려하여 영영에게 차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은 서로 가까이하게 되었으나 말 한마디 못하고 단지 눈길만 주고받을 뿐이었다. 영영은 차를 다 올리고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면서 품 속에서 편지 한 통을 떨어뜨렸다. 이에 김생은 얼른 편지를 주워 소매 속에 숨기고 나왔다.

-작자 미상, 「영영전」

(나)

[A]의 대화는 중국의 여러 경전에 나오는 이야기를 근원으로 삼는다. 가령 ⑦은 탕 임금이 어느 지역을 정벌하려 갔을 때 그곳의 백성들이 탕 임금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탕 임금이 와서 자신들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고 말했다는 『맹자』의 한 대목을 인유(引喻)한 것이다. 경전에 해박하면서도 이를 지적 유희의 맥락에서 자유롭게 활용하는 인물이 등장한다는 점에서, 이 장면은 ⑧전대의 애정 전기소설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성격을 이어받으면서도 발랄한 인물형으로 재창조한 「영영전」의 개성을 압축적으로 보여 준다. ⑨인물의 이러한 성격 변모는 주인공들의 재회를 둘러싼 문제 사태를 해결하는 국면에 전이되어 나타나고, 그 결과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초현실성이 제거된 채 세속적 일상성의 논리에 포섭되는 모습을 보인다.

<작성 방법>

- (나)를 참고하여 ⑦에서 ‘나’와 ‘낭자’가 어떠한 관계로 비유되었는지 쓰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인유를 통해 드러내고자 한 의미를 서술할 것.
- ⑧에 해당하는 인물형을 1어절로 쓰고, (가)에서 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할 것.

■ 예상 채점기준

- 2점 - ⑦에서 ‘나’와 ‘낭자’의 관계를 쓰고, 그 관계를 중심으로 인유의 의미를 서술했으면 : 각각 1점
- 2점 - 인물형을 1어절로 맞게 쓰고, (가)에서 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설명했으면 : 각각 1점

■ 예상 답안

⑦에서 ‘나’와 ‘낭자’의 관계는 혼란을 겪는 백성과 백성을 구제하는 탕 임금의 관계로 비유되었고, 이러한 관계의 인유를 통해 김생이 영영을 고통당하는 백성이 구원해 줄 임금을 기다리는 것처럼, 간절히 기다리며 만나기를 염원했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드러냈다.

⑧에 해당하는 인물형은 ‘재자가인(才子佳人)’형이다.

(가)에서 ⑨인물의 성격 변모가 주인공들의 재회를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에 전이되어 나타나는)는 김생이 영영을 만나기 위해 회산군 택 앞에서 취한 듯 말에서 떨어져 회산군 택으로 들어가는 장면이나, 영영이 김생에게 차를 올리면서 몰래 편지 한 통을 떨어트리고 김생이 편지를 주워 숨기면서 인연을 이어나가려는 행동에서 드러난다.

<수고하셨습니다>